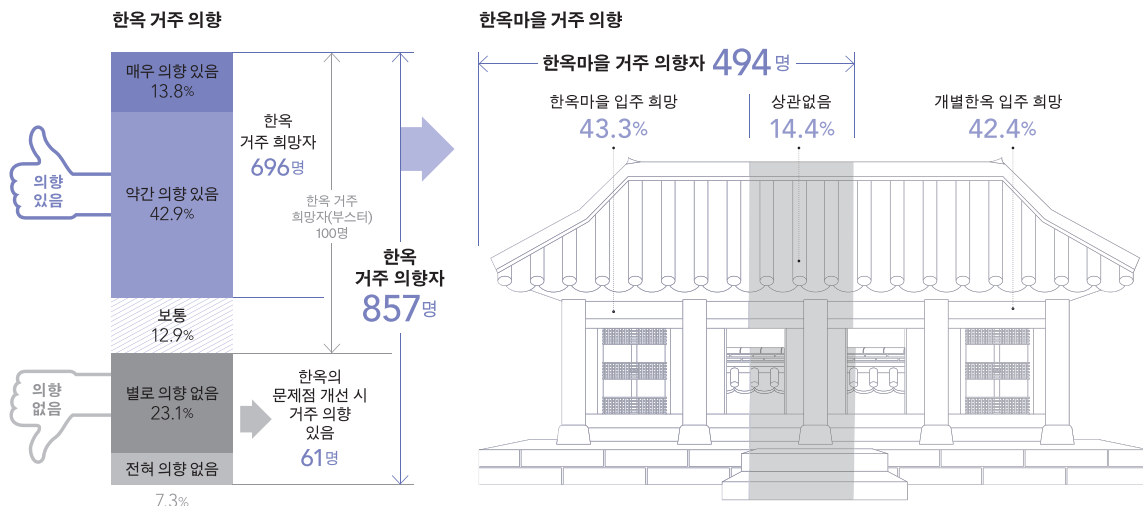


새롭게 부각되는 한옥마을, 어떻게 조성되어야 할까?

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한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2013년부터 2~3년마다 '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설문조사'를 벌이고 있다. 2016년에 실시된 설문조사는 만 30세 이상 만 65세 이하 성인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·성별·연령별 무작위 비례 할당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:1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, 통계자료실은 2016년 7월 27일부터 8월 22일까지 28일간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.

Q 얼마나 많은 국민이 한옥마을에 살고 싶어 할까?



A 한옥 거주 희망자 중 한옥마을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응답자는 43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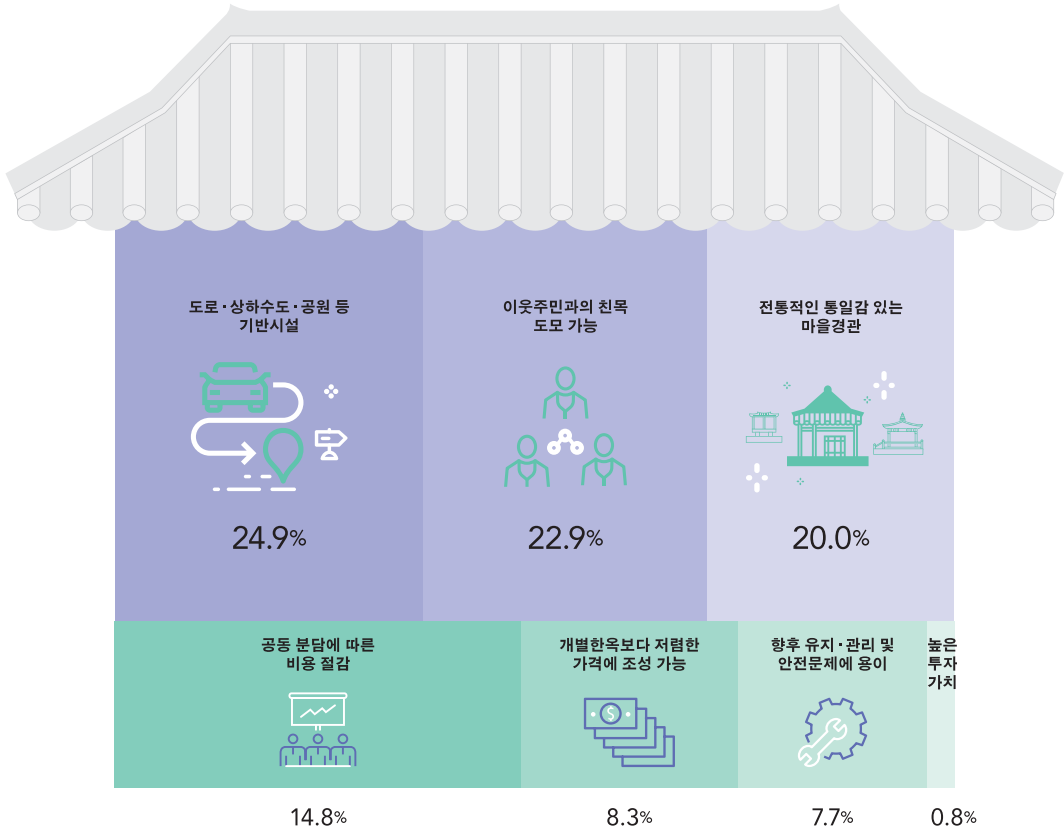
한옥 거주 희망자*는 56.7%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한옥 거주를 희망하고 있었으며, 한옥 거주 의향자** 중 한옥마을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응답자는 43.3%, 개별한옥에 거주하고 싶은 응답자는 42.4%,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는 응답자는 14.4%로 조사되었다. 한옥마을 거주와 개별한옥 거주에 대한 희망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, 개별한옥보다는 한옥마을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0.9%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* 한옥 거주 희망자: 한옥 거주 의향이 매우 또는 약간 있는 응답자.

** 한옥 거주 의향자: 한옥 거주 의향이 보통 이상인 응답자(한옥 거주 비의향자 중 문제점 개선 시 거주 의향 전 환자 포함).

Q 한옥마을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?

한옥마을 거주 의향자 494명, 1순위 응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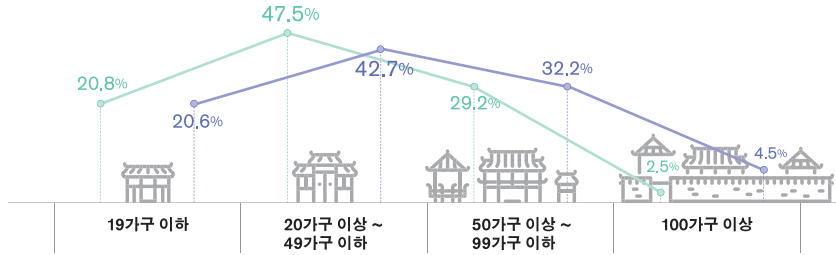
A 기반시설(도로·상하수도·공원 등), 이웃 주민과의 친목 도모, 전통적인 통일감 있는 마을경관 형성이 주요 선호 요인

한옥이 마을 단위로 조성될 경우 '도로·상하수도·공원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아서' 한옥마을에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24.9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'이웃 주민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쉽기 때문에'(22.9%), '전통적인 통일감 있는 마을경관의 형성'(20.2%), '향후 유지·관리 및 안전문제에 용이함'(14.8%) 등을 한옥마을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로 꼽았다.

Q 한옥마을의 적정 가구 수는?

한옥마을 거주 의향자 2013년 590명, 2016년 494명, 단위 : %

● 2013년 ● 2016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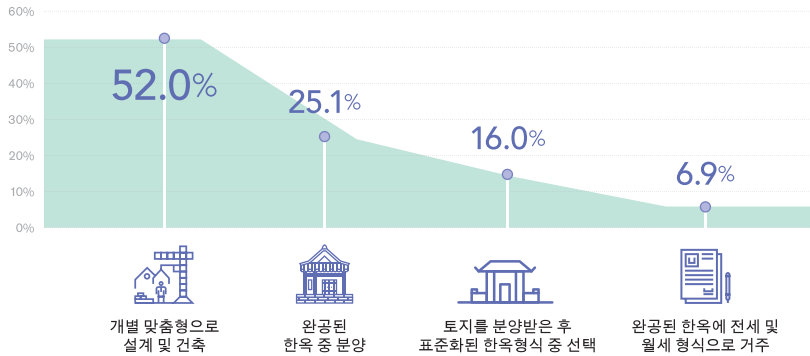


A 응답자의 42.7%가 2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 규모의 한옥마을을 희망

가장 선호하는 한옥마을의 가구 수 규모는 2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으로, 약 42.7%를 차지하였다. 그 다음으로는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이 32.2%, 20가구 미만이 20.6%, 100가구 이상이 4.5%를 차지하였다. 2013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중 소규모 한옥마을(50가구 미만)을 희망하는 경우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50가구 이상의 한옥마을에 대한 수요는 소폭 증가하였다.

Q 한옥마을 입주 방식 중 무엇을 선호할까?

한옥마을 거주 의향자 494명, 단위 : %



A 개별 맞춤형 설계 및 건축을 가장 선호, 표준화된 한옥주택은 비선호

한옥마을 입주방식으로 절반 이상(52.0%)이 수요자 요구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'개별 맞춤형 설계 및 건축'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'완공된 한옥 중 분양' 방식이 25.1%, '토지 분양 후 표준화된 한옥형식 중 선택' 방식이 16.0%로, 정형화되어 있거나 표준화된 한옥은 비교적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소유가 아닌 '완공된 한옥에 전세 및 월세 형식으로 거주'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은 6.9%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Q 한옥마을 내 어떤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할까?

한옥마을 거주 의향자 494명, 단위 : %



A 한옥마을 내 가장 필요한 편의시설은 ①대중교통 노선 ②텃밭·과수원 ③소매점

한옥마을 내 필요한 편의시설은 조사에서 제시된 편의시설 중 게스트하우스(44.9%)를 제외하고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. 그중에서 '대중교통 노선'(92.9%)과 '텃밭·과수원'(91.9%)이 가장 필요한 편의시설로 조사되었다. 이는 사람들이 한옥마을에서 대중교통의 편리함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누리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 그 다음으로 소매점(86.6%) 은행(85.6%) 문화시설 및 공원(85.4%) 등 생활편의·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.